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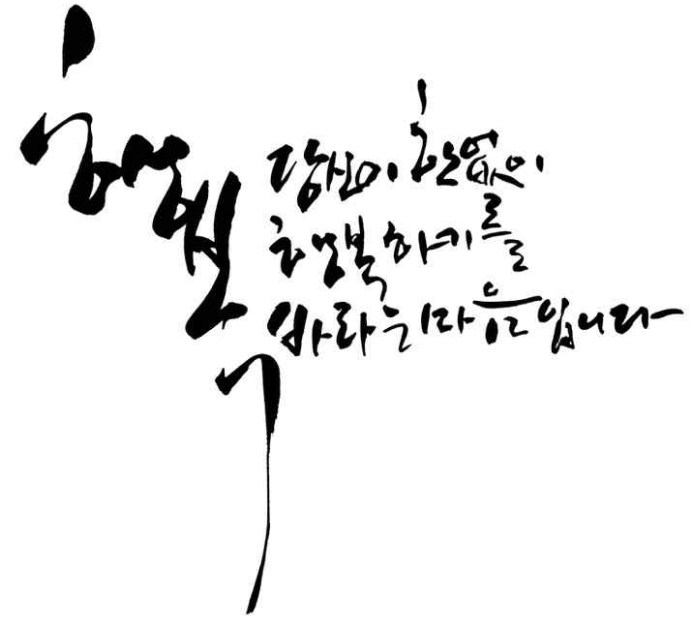
사랑하는 창신성결교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설 명절을 통해 가족들의 온정을 함께 나누시며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2016년에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 가정마다
사랑으로 함께하여
기쁨과 행복이 차고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창신성결교회 담임목사 이종복 드림

**명절에 드리는 예배는
온 집안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는 전통적인 차례(茶禮)의 의미와는 다르게 이해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전통적으로 명절에 드려지는 제사인 차례를 대신하는 의미의 예배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과 금년 한 해 동안도 은혜 중에 인도해주심과 앞으로도 항상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차려놓고 초나 향을 피운다거나, 절을 하는 행위 등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배 순서의 한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먼저 세상을 떠나신 조부모나 부모들의 신앙을 함께 연결하고 추모하고 가족 각자의 다짐을 함께 나누는 것은 신앙적으로도 뜻 깊은 일이기도 합니다.



설 날 가 정 예 배

2015년 2월 8일(음 1월 1일)



예 수 교
대한성결교회

창 신 교 회

서울시 종로구 창신5길 22호 www.changshin.org
Tel. 765-6850~3 / Fax. 765-6769

설날 가정 예배

※ 가능하면 가장이나 신앙의 연장자가 예배를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묵상 기도함으로 설날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묵상 기도 사 43:18-19 인 도 자

(43:18)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43:19)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찬 송 621 (통 없음) 다 같 이

기 도 가족중에서

성 경 살전 5:16-18 (신 p.332) 인 도 자
성경봉독은 다른 분이 하셔도 좋습니다.

찬 송 325 (통 359) 다 같 이
가족들의 특별찬송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말 씬 행복한 가문을 만듭시다. 인 도 자

행복이란 말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한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현대인에게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나고 질문했더니, 나라나 계층에 관계없이 돈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돈과 행복은 관계가 없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과연 어떻게 행복하게 될 수 있을까요? 진정한 행복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1) 항상 기뻐하는 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기쁨은 행복의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행복=기쁨’의 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을 받을 때나 복권이 당첨되었을 때는 기쁘지만, 그 기쁨은 시간이 흐르면 사라지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구속받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를 영접한 기쁨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며 그 기쁨이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 구속 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사 51:11)

2) 쉬지말고 기도하는 것이 행복의 과정입니다.

“우물에서 송늪을 찾는다”는 인간의 급한 행동을 지적하는 속담입니다. 모든 일에는 기한(전3:1)이 있습니다. 농사, 사업, 학업 등 모든 일은 그 결과를 맞이할 때 까지 기한이 있습니다. 열매에 따라 금방 거둘 수 있지만, 기한이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힘들어서, 낙심이 돼서, 어려워서 중간에 그만둔다면 우리는 어떤 결과도 얻을 수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실패는 없다.”는 말처럼 올해에는 포기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해 봅시다. 기도는 강력한 힘이 있고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갈 6:9)

3)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행복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연과 사람, 교회와 공동체, 나라와 민족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누리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받은 사람은 누구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감사는 행복의 열매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모든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전 3:13)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생활 안에 이루고 성취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를 행복으로 향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눔 다 같 이

※ 본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느낀 점을 가족끼리 함께 나누어봅시다.

아래의 질문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나눔이 끝나시면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시면 더 좋습니다.

1) 내게 기쁨을 주는 일은 무엇입니까?

2) 기도를 쉬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3) 무엇이 지금 감사한가요?

찬 송 559(통 305) 다 같 이

축복 기도 다 같 이

가장이나 신앙의 연장자가
참석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주시면 됩니다.

주 기도문 다 같 이